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7월 14일  
제2009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



〈열두 사도들의 파견〉, 제임스 티스트

## 연중 제15주일 (나해)

제 1 독서 아모 7,12-15 |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화답송 시편 85(84)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 2 독서 에페 1,3-14 <또는 에페 1,3-10> |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 마르 6,7-13 |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7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9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1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복음 묵상

제1독서에서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제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돌무화과나무를 가꾼 경험과 기술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아모스를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앞으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느님의 일에 관한 모든 능력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소유’를 요구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요한  
 13,16-17)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주인이나 스승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단죄, 험담,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같은 잘못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만일 하느님의 일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갈등을 겪는다면,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성체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  
 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김재덕 베드로 신부)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마르 6,12



## “소비주의로 마비된 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신앙을 살아내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 -

사회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신앙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7월 7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열린 제50차 이탈리아 가톨릭 사회주간 폐막미사 강론을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 사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신앙

교황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성전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폐쇄적인 신앙심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 역사 속으로 들어가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감각한 양심을 일깨우는 신앙, 사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신앙, 인간과 역사의 미래에 물음을 던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안주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마음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소비주의에 마비되고 어지러워진 사회를 가시처럼 찌르는 신앙입니다. 특히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에 따른 이해타산을 물리치고, 악을 고발하며, 불의를 지적하고, 권력의 그림자에서 약자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이들의 계략을 흠여버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용해 사람들을 착취하는지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 ‘사람이 되신 하느님’, 이해하기 힘든 걸림돌

교황은 예수님께서 “당신 사명에 충실하셨고, 모호함 뒤에 숨지 않으셨으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의 논리와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사랑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 인간의 비참함 안에 감춰진 하느님의 무한하심

교황은 트리에스테 출신 움베르토 사바의 시 ‘오래된 도시’를 인용하며 어두운 곳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생의 어두운 모퉁이와 도시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숨어 계십니다. 그분의 현존은 고통으로 얼룩진 얼굴과 부패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무한하심은 인간의 비참함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잊힌 사람, 버림받은 사람의 상처 입은 육신 안에서 그들과 매우 가까운 존재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 교회 소식

## 교황청,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 공식 승인

고(故) 김수환 추기경(스테파노·1922~2009) 시복 추진에 대해 교황청 시성부가 6월 18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 앞으로 ‘장애 없음’(Nihil Obstat) 통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김수환 추기경은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로서 ‘하느님의 종’으로 칭할 수 있다. ‘장애 없음’ 교령은 교황청 시성부에서 시복 추진 대상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복 추진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선언이다.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은 제11대 서울대교구장에 1968년 착좌 후 1998년 퇴임하기까지 30년 동안 교구장으로 사목했다. 개인적 덕행에서는 물론,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헌신,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증진을 위한 공헌 등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김 추기경은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빛’으로 불렸으며, 우리 사회 가장 소외된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했다. 선종 후에는 각막 기증을 통해 마지막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다.

교회 내에서는 김 추기경의 모범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 김 추기경을 시복시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해 정순택 대주교가 이를 받아들여 시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주교단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데 이어 이번에 교황청의 ‘장애 없음’ 승인이 나왔다.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가 됨에 따라 김 추기경의 시복 절차는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배 율 주교)는 김 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 추기경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 성덕의 명성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자료 출처: 가톨릭 신문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40705500030>



### 1 세계 선교를 위한 2차 헌금(7월 20, 21일)

- 알링턴 교구가 선정, 지원하는 모금
- 브라질 살바도로 두 번째 수도원 건립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빈민을 위한 살바도로 수도원은 빈민가 "알토 다 에스테란사"에서 선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많은 적자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원을 속히 열어서 새로운 성소자를 환영, 형성하고 빈민가인 "알토 다 에스테란사"의 빈곤층을 위해 장기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도움을 청합니다. (호아 파울로 산티아고 신부)

### 2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7월 14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 3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7월 21일(일) 오전 11:30 (B-3,4)

### 4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7월 21일(일) 오전 11:30 (A-1,2,3,4)

### 5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7월 21일(일) 오전 11시 (B-1,2)

### 6 연중 영화 상영

- 일시 : 7월 21일(일) 오후 3시
- 영화 제목 : 천국에 다녀온 소년
- 조용한 시골 마을의 성실한 가장 토드. 그의 네 살배기 아들 콜튼이 위급한 상태에서 가족과 주민들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회복된다. 이후 콜튼은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며 그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해 마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과연 콜튼의 이야기는 진짜일까?

### 7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본당
- 대상 : Rising 1<sup>st</sup> grade - 8<sup>th</sup> grade
- 등록 : 본당 입구, 주일 2시 미사 후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 늦게 등록하면 원하는 티셔츠 사이즈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토빗 4,11)

### 8 2024 - 2025년 CCD 조기 등록

- 대상 : 유치부(K) - 8<sup>th</sup> grade
- Early Bird Discount : 한 자녀 \$90 / 두 자녀 \$160 세 자녀 이상 \$180
- 등록 : Google Form / 접수양식(하상관 교무실), 8월 4일까지 (8월 5일 - 9월 15일은 할인 적용 안됨)
- 9월 15일(일) 이후 등록은 안 받습니다.
- 문의 : 권 에스더 (571) 723-7380

#### 레지오 침묵피정

-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침묵 피정이
- 7월 26일(금) 부터 27일(토)까지 D.C. 가톨릭대학에서
- 천영수 마론 신부(한국 외방 선교회)의 지도로 열립니다.
- 단원들과 협조 단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꼬미시움 단장 배성훈 디모테오

#### 공지

####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어느 성당이든, 어떤 미사든 상관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링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② 고해성사,
  -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 교중미사 예물봉헌

07/14 이번 주	우드브릿지 구역
07/21 다음 주	센터빌 1구역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7월 7일 (연중 제14주일)

봉헌금	\$ 8,395.00
교무금	\$ 11,150.00
교무금(신용카드)	\$ 2,890.00
감사 헌금	\$ 20.00
온라인 봉헌	\$ 4,585.00
합계	\$ 27,040.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7월 19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7월 21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교회사 2천년 : [제 3강]  
순례 길과 로마네스크 미술

####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아픈 이들에 대한 사목적 돌봄

병자성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성사로 주님의 힘을 얻고, 모든 이에게 연민과 희망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혼인공시

- 김윤옥(헬레나) 자 : 김동렬(미카엘)
- 성주훈(요셉) 녀 : 성아령(헬레나)
- 일시 : 2024년 7월 20일(토) 오후 3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 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11:00 AM				